



비전대 지적토목학과, 대학과 지역사회상생 발전 앞장

전주비전대학교 지적토목학과 학생들은 지난 22~23일 이틀 간 전북 시·군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드론 조종 및 영상 콘텐츠 제작' 재능 기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드론산업의 전반적인 이해와 활용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함양, 드론영상촬영부터 동영상 콘텐츠까지 전문의 전반적인 실습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번 재능기부는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2022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1유형) 산학협력 혁신 프로그램의 일환인 산학연계 현장기반 실무역량강화 프로그램 중 하나로,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배운 전문지식과 기술을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함이다. 교육 참가자들은 "드론 실습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해 좋았고,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준 팀원들에게 고맙다", "친절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얻어 뜻깊었다"고 말했다. 교육을 지도한 이근상 교수는 "이번 재능 기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시간이었다"며 "서비스러닝은 대학 자원을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대학의 역할을 공공성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2022 투르드 진안고원' 성료

소상공 등에 '활력' · 대회 연계 관광 등에 박차

진안군은 지난 25일 군에서 개최한 전국규모 자전거대회 '2022 투르드 진안고원'이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JTV 전주방송과 사단법인 GFS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자전거 동호인 및 임원 관계자까지 약 1,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북부마이산 관광정보센터 앞 주차장에 북부마이산 관광정보센터 앞 주차장에 출발하고 400m의 고원지대 진안군에서 청명한 날씨와 마이산과 용담호 등 천혜의 자연이 어우러진 레이스로 참가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특히 이번 대회를 통해 관내 소상공인 및 지역업자와 숙박업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대회와 연계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며 스포츠마케팅에도 일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회는 비경쟁 방식의 대회이지만 결과는 남자 1위(소규식 개인), 여자 1위(강민정 말로아에이팀), KOM(King of Mountain, 1.2km) 구간 남자 1위(왕의창), 여자 1위(전국산)를 기록했다.

전준성 군수는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협조해주신 진안경찰서 및 진안군체육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분들께 감사하다"며 "전국 자전거 동호인들이 마이산과 용담호를 아름답게 수놓으며 진안군 일대를 질주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으며 이번 대회를 통해 홍보효과가 극대화되어 진안군 대외적 이미지가 제고되고 내부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효과가 있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조상건 병원장, 우석대에 장학금 1000만원 전달

조상건 군산속려한내과의원 병원장이 우석대학교에 10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23일 대학 본관 2층 총장 집무실에서 진행된 장학금 전달식에는 남천현 총장과 조상건 병원장, 김윤태 평생교육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조상건 병원장은 3000만 원을 출연해 수년 장학금을 조성, 3년 동안 학부와 대학원생 53명에게 장학금 3000만 원을 전달한 바 있다. 조상건 병원장은 "우석대학교가 지역을 대표하는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우뚝 서는데 작게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기금을 출연하게 됐다"며 "자신의 꿈과 미래를 향해 밝은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남천현 총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2016년에 이어 두 번째 장학금을 출연해 주 감사하다"며 "학생을 중심에 둔 대학 운영을 통해 지역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 나가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장은성기자

남원시, 전라북도 장애인체육대회 폐막

남원에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열린 2022 전라북도장애인체육대회가 25일 대관원의 막을 내렸다. 이 기간 춘향문화체육관 및 종목별 경기장에서 개최된 대회에는 20개 종목 2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열린 경기를 펼쳤으며, 전북 14개 시군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됐으며, 우승 전주시, 준우승 정읍시, 3위 익산시, 4위 남원시, 5위 군산시가 차지, 2023 대회는 김제시에서 개최된다. 특히 남원시는 금번 장애인체전을 위해 수영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등 신규경기장 신축으로 장애인들이 최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사로 제작살치, 휠체어 이용 가능한 식당홍보, 대회안내 팸플릿 일부 점자로 제작·배부하는 등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세심한 부분에도 많은 신경을 기울였다. 또한 대회 기간 중 남원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깨끗하고 친절하고 고상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 대대적인 환경 정비와 함께 교통질서를 확립했고,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 노



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제거, 불법 현수막 철거 등 기초 질서를 확립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대회가 8만 남원시민들에게 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서 지리산권 스포츠 중심도시로서의 명성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는 대회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제5회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남원시는 지난 24일 사랑의 광장에서 '제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제5회 남원시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복지현장에서 헌신한 종사자들을 표창하고, "더 새롭게, 더 행복하게, 다시 복지!!"라는 슬로건 아래 27개 사회복지 유관기관과 2,5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복지소 소통하는 축제로 진행됐다. 특히 복지 기관단체 주관으로 폐목재를 활용한 화분제작, 엽서그리기, 소원 팔찌만들기 등의 체험행사를 운영하였고, 색소폰 연주, 부채춤, 관소리, 초대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제공되었으며, 우울증 검사, 장애인 인식개선 체험 등 복지 정보가 제공되어 주민들이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복지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장을 제공했다. 한편 최경식 시장은 "복지현장에서 땀 흘리는 모든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뜻 깊은 행사를 통해 다양한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따뜻한 동행으로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포용적 복지구축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태권도진흥재단, 노·사공동 성범죄 안전지대 선언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용환 이하 재단)은 26일 오후,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 등 각종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관련 문제로부터 안전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재단 노조(노조위원장 조재동)와 함께 노사 공동 합의문을 채택, 피해예방에 적극 나섰다. 공동합의문에서는 성폭력·성희롱·성매매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물론 사고 발생 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등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사가 하나로 뜻을 같이 했다. 이에 재단은 성비위 관련 내부 징계기준을 강화하며,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 지속적인 예방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용환 이사장은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하고 직원들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관장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같이 한 만큼 직원들도 성범죄로부터 청정하고 안전한 직장을 완성하기 위해 함께 할 것"이라고 동참의사를 밝혔다. /무주=전문선기자



부안군, 고위직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부안군은 26일 부안군청 대회의실에서 부안군수를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 41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매년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5급 이상) 대상 별도 교육이 2021년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실시됐다. 교육을 진행한 마음채심리상담센터장 홍미선 강사는 관리자의 인식개선을 통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방법에 대해 설명했으며, 리더로서 가져야 할 성인지 감수성 등에 대해 강연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성평등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남녀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간부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수평적인 조직문화로 서로 배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라"고 강조했다. 부안군은 매년 전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보호하고 2차 피해방지를 위해 고충상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부안=김석진기자



남원시의회, 태풍인남도 피해성금 포항시의회 전달

남원시의회가 태풍 '인남도'로 인한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포항시민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23일, 포항시의회를 방문해 백인규 의장에게 성금(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에는 전평기 남원시의회 의장, 오동환 운영위원장, 윤지용 의원, 이숙자 의원 등이 함께했으며, 태풍 '인남도'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인 포항시민들의 아픔을 함께하고자 남원시의회 16명 전원이 십시일반 뜻을 모았다. 전평기 남원시의회 의장은 "아픈 속은 아파본 사람이 알고 가장 시급한 것은 신속한 피해복구라는 점을 잘 알기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뜻을 모으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에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은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신 남원시의회의 마음을 시민들에게 잘 전달하고 피해복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적십자 가운누리봉사회, 산동면에 이동세탁 봉사

남원시 산동면(면장 김경숙)은 지난 26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남원 가운누리봉사회(회장 오대식)이 부절리 중절마을 회관에서 이동세탁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탁 봉사에는 가운누리봉사회 봉사원 30명이 참여해 산동면 일대 독거노인, 취약계층 가구의 목은 이불 등 빨래를 직접 수거하고 이동세탁차량으로 세탁해 배달했다. 한편 봉사단 오대식 회장은 "지역사회 소외계층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히 지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김경숙 산동면장은 "함께 해 주신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꼼꼼히 살피고 보살피며 따뜻하고 행복한 산동면을 만들어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 장명동 주민센터 상명새마을금고, 해피홈 봉사

정읍시 장명동 주민센터와 상명새마을금고 직원 10여 명은 지난 23일 '해피 홈(happy home)' 봉사활동을 펼쳤다. '해피 홈 봉사활동'은 두 기관 직원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발굴, 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과 봉사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민간 협력사업이다. 상명새마을금고의 후원을 받아 15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취약계층 3세대를 방문해 차렵이불과 백미를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숙 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년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시는 새마을금고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농·축협, 고향사랑기부제 쌀 소비촉진 홍보

농협 정읍시지부(지부장 이재연)는 지난 24일 제33회 정읍시문화제 개막에 맞춰 문화공원 광장에서 정읍쌀 소비촉진과 '고향사랑기부제' (내년 1월 시행 예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윤준병 국회의원, 이학수 정읍시장, 고경운 정읍시의회 의장 및 의원, 전평기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읍시조합운영협의회 회장 김성주 조합장 및 농·축협 조합장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정읍시문화제를 관망하기 위해 정읍시문화공원을 찾은 방문객 1,000여명을 대상으로 쌀쌀을 나눠주며 정읍쌀 소비 확대를 호소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알리며 대국민 공감 인식 확산에 노력했다. 이재연 지부장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고 쌀값 하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께 힘이 되고자 이날 홍보 캠페인을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읍시와 힘을 합쳐 농협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